

WAG 아·태 총회장 및 선교리더회의의

지역별 부흥선교전략 위해 지역 조정안 등 의제로, 심용재 국제총회장 참석

브루나이에서 열려

세계하나님의성회(WAG)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장 및 선교리더회의가 지난 7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모슬림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브루나이 하나님의성회 주관으로 브루나이 하나님의성회 총회장이 섬기는 Agape Family Center교회(AFC)에서 개최되어 지역별 부흥선교전략을 위해 지역을 조정하는 안 등을 비롯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의는 12개국(한국 예하성-본 교단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 참석, 광화문측,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홍콩, 몽골리아, 미얀마, 태국(두 그룹),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아시아 태평양 지역장)등이 참석하여 세계하나님의성회 지역 분할에 관하여 논의했으며 동북아 지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세 나라만으로 구성되어 나누어졌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장 회의는 기존에 형태대로 갖기로 했으며 오세아니아 지역도 포함하는 의견에 오세아니아 지역의 거리 등으로 참석 여부에 관하여 고려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하나님의성회 계획 2033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성회 교회 계획(MM33)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각 국 총회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또한 나눈 내용으로는 선교사파송

에 관하여 파송시 각국 총회에 선교사 파송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선교사들을 보호하며 각국과 긴밀히 협조하자는 의견과 지난 미얀마 상황(지진으로 입은 피해)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재난 구호를 위한 기금 조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난 발생 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각 나라가 \$500 씩 \$5,000(year)을 조성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들(24개국)이 기금을 조성하여 유사시 재난을 당한 국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장 회의의 재무가 브루나이 총회장이기도 하여 아시아 태평양 총회장 모임 계좌로 송금 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3일간의 총회장 회의를 마친 후 7월 16일(수)



WEA 서울총회 반대 성명 발표-예장합동

예장 합동 전임총회장단, “WEA는 종교다원주의, 교류·가입 거절”

예장 합동 교단의 전임총회장단(회장 김신규 목사 외 회원 일동)이 10월 말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8일(월)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전임총회장단은 “WEA는 성경적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신복음주의 단체이며, 종교다원주의적 성향과 에큐메니칼 활동으로 인해 우리 교단과 신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단체”라고 규정하며, 예장 합동의 WEA 가입 및 교류 금지를 촉구했다.

“WEA와의 교류는 총회 결의 위반... 교단 정체성 훼손 우려”

이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WEA(당시 NAE) 탈퇴를 결의한 이래, 106회 총회에서도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논쟁을 피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이는 탈퇴 결의가 유효하다는 뜻”이라며, 교단 내 일부의 친WEA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 소속된 예장 합동 교단 내부에서조차 총회 결의와 배치되는 활동이 벌어지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교단 총회장이자 한교총 대표인 김중혁 목사도 WEA 유지 지지 서명에서 이석함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굿윌 사나 의장, 신사도운동 계속... 총회 결의에 정면 위배”

전임총회장단은 WEA의 현 의장 굿윌 샤나(Goodwill Shana)의 이단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의 한 신학 교수가 굿윌 샤나 목사가 시무하는 짐바브웨의 교회를 직접 방문한 결과, 신사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제100회 총회에서 교단이 신사도운동을 단절할 것을 결의한 것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신학적 정체성 없는 연합은 복음의 길 아냐”

전임총회장단은 WEA의 신학적 기반과 활동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WEA는 신복음주의 단체로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정통주의 및 성경비평학에 영향을 받는다.

WCC와 유사하게 ‘복음화’보다 인류 공동선 추구에 초점을 두며,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WEA는 로마가톨릭 및 이슬람 등과 회동하고 협력함으로써,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행보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WEA는 성경적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며 교회관과 기독교 세계관에 혼란을 초래하는 해로운 단체”라며, “우리 교단은 WEA와의 모든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가입을 단호히 금지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미국 PCA 교단도 NAE 탈퇴... 교계 전반의 우려 반영

한편,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교단 중 하나인 PCA(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도 최근 NAE(WEA의 미국 조직)에서 탈퇴한 바 있다. 탈퇴 사유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고려한 차별금지법’ 지지를 포함한 결의안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번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단의 입장 발표는, 한국교회 내에서 WEA 총회를 둘러싼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교단의 정체성과 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총회 대응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7면에 게재되었습니다



프로창
은
말씀
은
시대

‘이러한 기도(2)’

조용묵 목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나...”
(요 14:13,14)

성경에 기록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기도, 그들이 직면한 상황과 기도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투철하고 선정을 베푼 왕 중에 속합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에 실책이 있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사략한 왕 아합과 손을 잡고 길르앗 라못 성읍을 도왔는데 동맹하여 참전했다가 참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리고 에돔이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한편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공포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성전 뜰 앞에 모인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으니 주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지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대하 20:6~12)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대하 20:15~17).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을 향하여 출발하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자중지란이 벌어지게 하였으므로 피차에 살육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들 땅대에 이르러 전장을 바라보니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었습니다.

둘째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신앙적

인 면에서는 최상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행하는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된 해에 위독한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방문하여 병이 치명적인 것임을 알리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병이 완전히 나아서 사흘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십오 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 후 강대국인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제 2차 침공을 했을 때였습니다.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진격해 들어오고 앗수르 왕의 신하 탐사게가 히스기야를 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복들을 보내어 절박한 위기 상황을 알리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의 변화가 없고 위험은 가중되었지만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가서 산헤립이 보낸 최후통첩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왕하 19:15~19)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므로 도리어 앗수르가 유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훼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헤립의 도모가 허사가 되고,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언한 날 밤에 앗수르 군사 십 팔만 오천 명이 몰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은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황급히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물러갔다가 그가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두 아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난관에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거듭 읽으십시오.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WEA, 예장 합동 신학과 양립 불가”

문병호 총신대 신대원 교수, ‘서울총회 불가’ 한기총 대책 세미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7월 29일(화) 오전 서울 종로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차 WEA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문병호 교수(조직신학)가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 WCC에 편승하여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가감’을 주제로 WEA 서울총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인사말을 전한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한국 개신교는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세워졌다. 세계적인 칼빈신학자인 문 교수님은 한국인 최초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 원전에서 직접 번역하신 분으로,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라며 “한국교회가 그 고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연한 문병호 교수는 “2025년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의 주도로 10월에 개최될 예정이고, 2024년 11월 15일 조직위원회가 창립됐다. 이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WEA는 WCC-로마가톨릭 사이 삼자 대화와 CGF 등의 활동을 통해 점차 복음주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에큐메니즘의 옷을 입게 됐다. 그 결과물이 2011년 공표된 ‘다종교 세계의 기독교 증언: 행위를 위한 권고들’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로마가톨릭의 PCID(종교 간 대화를 위한 교황위원회)와 WCC가 협의하고 WEA가 초대돼, 이 세 주체가 5년간의 연구 후에 내놓은 것이다. (당시) WEA 신학위원회 토마스 슈트마허(슈마허)는 2013년 WCC 10차 부산 총회에 즈음해 본 문건이 ‘기독교의 하나 됨을 확산시킬 것’이며 ‘총체적 선교를 각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적 삶과 건강한 사회’ 전국 순회 세미나

기독교국제중독전문연구원, 8월 25일 오후 2시 강릉 한국여성수련원

성경적 삶과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기독교국제중독전문연구원(원장 김도형 목사)은 중독없는 세상을 위해 강원도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오는 8월 25일(월) 오후 2시 제2차 전국 순회 중독세미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새울평생교육원(원장 김도형 목사/ 서울남부교육청 제1104호)이 함께하며, ‘중독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국내 최고 중독예방 전문가 김도형 목사와 이미숙 박사, 성기정 박사가 강사로 나서게 된다. 이들은 중독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치유,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한 정보와 견해를 풀어낼 계획이다.

강의를 통해 사회와 교회가 중독 문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전



문가를 양성해야 하는지, 중독문제의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미나 개최와 관련 김도형 박사는 “우리는 KNAADAC(한국 나다), 새울평생교육원, 기독교국제중독전문연구원 등 최고의 중독 관련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하고 있다”며 “중독자들이 치유를 통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사역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 기독교국제중독전문연구원은 전국 18개 시도를 순회하는 ‘전국순회중독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1차 세미나는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했으며, 3차는 오는 9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등록 문의: 02) 2682-2092

마약 예방·재활 언론 홍보 업무협약

답콕-한국기독교언론협회, 캠퍼스 마약 확산 차단 활동 기대

(사)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센터 답콕(DAPCOC, 이사장 두상달)과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노근채)가 7월 25일(금)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예방과 재활 관련 활동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관련 예방 교육과 재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상달 답콕 이사장과 노근채 한국기독교언론협회 회장이 서명한 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캠페인, 언론 보도, 공익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마약류 예방 관련 행사 및 포럼 공동 개최 및 상호 홍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 관련 언론 취재·보도 기



획 및 지원 △중독자 치료·재활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 △기타 협의 하에 필요한 사항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체계적으

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해 답콕의 마약 예방 활동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 개항장, 기독교·역사 명소로 조형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인천·강화

2025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인천 개항장 일대가 종교·역사 유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1885년 4월 5일, 헨리 아펜젤러와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 땅을 밟은 이곳은 한국 개신교 선교의 시작점이다. 당시 상륙 지점엔 현재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선교 거점이 된 내리교회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로, 초등교육기관 영화학당 설립, 남녀 예배석 구분 철폐, 해외 선교사 파송 등 다수의 ‘국내 최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로제타 홀 선교사가 1921년 개설한 여성 진료소는 현재 인천기독교병원의 전신으로, 그 뜻을 기리는 ‘로제타 홀 기념



관’도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1월까지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인천 성지순례길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 중이다.

내리교회, 담동성당, 성공회 내동교회 등 총 9곳을 포함한 코스를 따라 4곳 이상 방문하면 소정의 카페 이용권도 제공된다.

참여는 ‘인천e지’ 앱 설치 후 ‘2025 인천 성지순례길 스탬프투어(개항장)’를 선택하면 된다. GPS 기반으로 스탬프가 자동 부여된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지역 종교·역사 자원을 활용해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종교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감생활중 감시교도관 축복

중국의 한 목회자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 소개

2021년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의 한 목회자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감옥에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주변에서 감시하는 교

도관들을 축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 VOM)의 중국 동역 기관으로서 미국에 본부를 둔 차이



나에이드(China Aid)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 있는 ‘런하이개혁교회’(Renai Reformed Church)의 장춘레이(Zhang Chunlei) 목사가 지난달 감옥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장춘레이 목사의 편지에는 평범한 이야기도 많지만, 자신의 상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얻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다. 장춘레이 목사는 가족들이 너무 그리지만 ‘감옥생활이 부족한 데가 없고, 생활환경도 좋고, 과일과 우유도 먹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평범한 이야기와 더불어 감옥에서 기도하며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독회복자인권재단, 개소 감사예배

중독회복, 인권 회복,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상담·연대 활동

중독 회복자들의 인권 보호와 치유 사역을 위해 설립된 중독회복자인권재단이 지난 7월 26일(토) 오후 1시 서울 사무실에서 개소 감사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예배는 박진권 사무국장의 사회로, 1부 예배와 2부 사업 소개 및 나눔의 순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참석자들의 찬양과 중

보기도, 박진권 사무국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안용운 목사(행복한윤리 대표)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정하 사모의 특송, 최모세 목사의 헌금 기도, 김윤태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됐다.

2부 순서에서는 안용운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길원평 교수가 재단 설립의 취지

를 소개하고,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가 축사했다.

이후 박진권 사무국장이 재단의 사업 방향과 활동 계획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사역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이명진 장로의 마침 기도로 감사예배가 마무리됐다.

이명진 장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는 “주님께서 이곳의 주인이 되셔서, 이곳을 찾는 자마다 주께 접붙여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다. 아울러 “상처받은 치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에게 새 힘과 믿음을 더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독회복자인권재단은 앞으로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회복과 인권 회복,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상담,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동대 환동해지역혁신원 ‘파랑뜰’

지역 밀착형 플랫폼 복합 문화공간 성과 입증

한동대학교는 포항시 장량동에 위치한 환동해지역혁신원 제1캠퍼스 ‘파랑뜰’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지역 밀착형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성과를 입증했다.

포항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파랑뜰은 2024년 7월 개관 이후 지난 1년간 약 4천 명의 포항시민들이 방문하며 지역사회 대표적 혁신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시민대상 각종 강좌 35건과 공간대관 102건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파랑뜰의 가장 큰 성과는 학생들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에 나선 ‘지역혁신 집중학기’ 운영이다. 지난 1년간 총 51개 팀 243명의 학생이 참여해 포항을 비롯한 환동해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요 성과로는 △포항 해의이주민의 우울감 개선을 위한 챗봇 개발 △포항 중앙시장 및 철길숲 활성화 재생 프로젝트 △경북 고령사 헬스케어를 위한 혈압 이상 예측 인공지능 개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총 69건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지역문제 정의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도성 한동대 총장은 “파랑뜰은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실현해나가는 실행 중심의 협력 거점이자 글로벌대학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기아대책과 전 세계 취약 지역 방문 봉사

윤도현의 YB, 데뷔 30주년 맞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봉사활동

데뷔 30주년을 맞은 그룹 YB가 기아대책과 함께 해외 봉사활동을 시작,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밴드로서 새로운 행보에 나선다.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YB는 최근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월드트립’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은 데뷔 30주년을 맞은 YB가 음악을 넘어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직접 실천하는 밴드로 거듭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한 해외 봉사활동이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 홍보대사 윤도현 씨를 포함한 전 멤버는 7월 21~24일 나흘간 기아대책이 지원하고 있는 자카르타 사업장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멤버들은 자카르타의 대표적 빈곤 지역으로 꼽혀 일명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탕에랑(Tangerang)을 찾았다. 이곳에서 멤버들은 기아대책이 지원하고 있는 소망유치원을 방문, 현지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을 손수 만들고, 직접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1면에서 이어짐

또 ‘슈트마허가 2012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WEA와 회원교회들은 WCC 회원교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WCC의 헌장에 동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고, ‘WCC의 회원교회들도 WEA의 신앙고백이 언급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WEA가 WCC가 근본 교리에 있어서 부딪힘이 없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는 1959년 11월 25일 승동교회

에서 WCC 영구 탈퇴를 결의한 후 ‘NAE 회원은 총회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나 총회를 아지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평이 있으나 교직자(목사, 전도사)는 탈퇴하기를 가결’했다. 그리고 총회 원칙과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를 재차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의가 지금도 유효한 것은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서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논쟁을 피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2025년 WEA 서울총회 유치는 본 교단 총회의 결의에 반하는 ‘명확

한 윤곽’을 분명히 드러내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본 교단(예장 합동) 신학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은 앞서 2차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월 사나 WEA 국제이사회의 신학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나 국제이사자가 ‘신사도 운동’과 연결돼 있으며 정규 신학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은 점을 들어, 국제 연맹의 수장으로서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생명의 말씀 ●



엄 하 석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 주성교회

※ 신속대응사단 위문
교단총회장 위문 설교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 2: 13-14)

은 국민이 폭우와 폭염으로 힘든 여 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 갑습니다. 저는 70년대 군 생활을 했습 니다.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 진급한 후, 어느 날, 상병되는 중교참이 저에게 말했 습니다. 엄 일병 적당히 해, 국방부 시계 는 다 똑같이 돌아간다.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월 급이 더 나오거나 하나, 국방부 시계가

빨리 돌아가서 일찍 제대를 할 수가 있 겠지 하나,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고 참의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 니다. 류 상병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것 알 고 계시죠,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 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하 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밖에서나 안에 서나 저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 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 기뻐하시도록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말을 들은 고참의 반응은 ,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무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적 당히 하도록 해.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에게 내일부터 연 대본부 작전과에 가서 근무하라고 했습 니다. 다음날 연대본부 작전과에 가서 신고하고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 다. 작전과 보좌관이 저에게 군 행정 업 무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작전과 사병이 휴가를 갖

는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내려 와 다른 사람이 필요했고, 보좌관이 저 를 중대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연대 많은 사병 가운데 왜 저를 뽑았습니까. 그때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병 측정 결과를 살펴보고, 제 가 어떻게 중대 생활을 하는지 알아보 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을 하는데 가장 확실한 정보는 저의 중대장님이 엄 일병은 맡은 바 직무를 책임 있게 일 하므로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 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계시지만,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 다는 사실요.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 기뻐하시도록 살면, 사람들에게도 인 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며 평안하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 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 어났는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가는지, 왜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귀한 자녀로 태 어나 살아가게 하였는지를 아는 것이 구 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신비로운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 고 믿음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고 시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 시옵소서!” 어떤 처지나 환경, 몸의 상태 나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 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 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구원 받으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 집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잘못된 인간 관계와 이해되지 않은 환경에서 비롯됩 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관계에 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구원 받 은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족 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하므로 나타나 는 현상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하 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국군 장병 여 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 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생 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 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 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 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북한의 체제선전 콘텐츠 교육 현장 배포는 안된다

최근 통일부는 북한의 만화, 영화 등 지금까지 정부에서 특수하게 분류하던 자료들을, 북한 체제선전 우려가 없다면 제한을 푸는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 하였다. 이미 그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반응이 아닌가?

북한에서 제작된 문화 콘텐츠 가운데 그야말로 순수한 작품들이 얼마나 되겠 는가? 북한은 1인 지배 체제로 오랫동안, 모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부합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를 갑자기 풀어준다는 것 은 북한 체제 선전물들에 대한 무장해제 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특수자료로 분류된 것들은 3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북한을 연구하는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통일부장관 후 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끝내 북한 을 ‘주적(主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북 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주장하면, 거대 여당인 입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 을 만들어 ‘잘떡궁합(?)’을 만들고 가는 모양이다. 국회는 정부의 견제 기능이 아 니라, 행정부의 하명(下命)을 받드는 기 관인가?

생각해 보자. 북한의 수많은 만화, 영 화 등의 체제선전용 자료들이 학교로 흘 러 들어가 아이들에게 학습용으로 이용 된다면, 그 폐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미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공산당을 찬

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 좋은 교육” 보도에 의하면, 2018년 EBS 교육 방송에서는 김정음을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미화 하였고, 또 세계 최연소 지도자라고 미화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또 2022년 광주 MBC가 주최한 정을 성 동요대회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이 중국 교과서에 실린 곡을 노래하였고, 어떤 성 약가는 정율성의 ‘연안송(延安頌)’을 불 렀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혁명을 떠받 드는 것이다.

정율성이 누구인가? 중국에서 ‘팔로 군 행진곡’을 만들어, 중국인들이 100대 영웅으로 꼽는 사람이다. 그는 북한의 ‘인민해방군 군가’를 만들기도 하였고, 6·25때는 중공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도 들어왔던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다. 그 럼가 하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태 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걸리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대북 방송 중단과 대북 전 단 살포는 금지시키면서,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콘텐 츠를 대대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정부가 북한의 문화 콘텐츠를 개방한다고 하여도, 성인(成人)들은 그 들의 체제선전에 동요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은 상당 히 세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적 도 분간하지 않겠다는 통일부가 노리는

것도 바로 어린 세대들에게 미칠 사상적 영향을 고려한 것은 아닌가?

교육에서 정치적, 가치적 중립을 지 키지 못하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편향과 선전(宣傳)이고 선동(煽動)이 된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 체제를 학습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 무리수가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일도 필요하고 통일교육도 해야 되고 남북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교육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어떠한 것들도 해서 는 안 된다.

● 동정 ●

성누가회 인도 의료선교



의료선교회 성누가회(대표 신명섭 원장)는 지난 7월 26일 (토)부터 28일(월)까 지 인도 델리 인근 구 르가온 지역 갈렙신 학교(Caleb Institute) 캠퍼스 내에서 ‘힐링핸즈(Healing Hands)’ 의료선교 를 진행했다. 성누가회는 내과 및 치과 진료와 보건 교육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지 주민들에게 전했다.

아신대 신학박사 과정 대면·온라인



개교 51년을 맞은 아신대(ACTS·총장 정홍열)가 해외 및 원거리에서 공부하고 자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하이브리드 형 태의 신학박사(ThD) 과정을 신설한다. 1974년 아세아 복음화와 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아신대는 새로 운 100년을 시작하며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025 나사렛 여름 연합성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감독 최형영 목사) 총회가 천안 나사렛대에서 2025 나사렛 여름 연합성회를 열었다고 지난 1일(금) 밝혔다. 지난 7월 27일부터 나흘간 열린 이번 연합 성회는 ‘폴리리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다.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 캄보디아에



성산장기려기념 사암회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총단장 장여구)이 캄보디아에서 지난 7월 17일 (목)부터 엿새간의료 봉사를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의료진과 학생 4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깐달주 영스 놀 지역에서 500여 명을 진료했으며 어 린이 200여명에게는 보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 신속대응사단 훈련장병 위문 ●

군선교위원회...훈련 장병들 말씀과 기도로 위로 격려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 부위원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7월 22일 (화) 신속대응사단을 방문하고 교육훈 련에 열중하는 장병들을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으로 위로 격려했다.

비가 세차게 오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조금의 틈도 융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부대 장병들을 위해 함께 한 교단 총회장 엄하석 목사님과 전임 총회장 임웅재 목사,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정석현 목사, 김남수 목사, 임형순 목사, 오세준 목사, 문찬우 목사는 부대에 도착하여 사단장의 따뜻한 환영의 영접을 받고 바로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 문에 참여한 일행을 소개하고 부대 간부를 소개받았다.

곧바로 부대소개 영화를 시청하고 사단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폭염과 계속된 비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임무를 띤 신속대응사단을 방문해 주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엄하석 목사님을 비롯해 임원 및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총회장님과 여러 목사님들의 군 선교에 지극한 관심으로 위문해 주시고 기도하며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렸다.



특히 군선교는 미래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이기에 반드시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했 다. 이어 거둬들여 교단과 참석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설교말씀을 전한 후 준비해 간 성경, 운동기구, 간식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 날 엄하석 목사는 빌 2:13-14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떤 처지나 환경, 몸의 상태나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 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전하고 구원의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당부하고 장병들을 축복했다.(이번호 3면 생명의 말씀 전문)

이 날 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사단장에게 성경책을 선물했으며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신앙서적 50권을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가 정책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달했다. 전임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기도로 위문을 마치고 사단장은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신속대응사단과 장병을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이날 위문단은 장병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부대를 내려와 귀가했다.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소망교회

개척사명을 가진 목사님을
후임 목회자로 초빙합니다

- 표어: 십자가 구원의 복 누리는 것(요 19:30)
- 목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마 25:23)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촌1길 69-2(죽리 377) 031-674-6745 010-3947-2224 담임목사 강희문

“복음의 핵심을 삶으로 새기다”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 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는 지난 7월 31일(목) 저녁부터 8월 2일(토) 오전까지 2박 3일간 제주한마음교회에서 제2기 오순절성령비전캠프를 은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현대 교회 가운데 다시 체험하고, 새신자들이 가장

제2기 오순절성령비전캠프 열려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을 삶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정착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캠프는 천안 순복음침아름다운교회(담임 안병찬 목사)와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으며, 제주한마음교회 성도 20명이 게스트로 참여하고, 지난 1기 때 은혜를 체험한 20명이 ‘섬김이’로 자원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또한 천안 순복음침아름다운교회

에서도 도우미 10명이 제주까지 내려와, 프로그램 전체를 코칭하며 강의와 기도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간증을 이어갔다. 한 참가자는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처음 느꼈다”며 “그동안 종교생활에 머물렀던 나의 신앙이 참된 관계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마음 깊은 상처를 다루는 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자유함을 체험했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라고 전했다.

‘섬김이’로 봉사한 한 성도는 “지난해 게스트로 참가했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번에는 무조건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섬김의 자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성령대방회 시간에는 전원이 두



손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과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김건수 담임목사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며,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

라 거룩한 공동체임을 다시금 느꼈다”며, “새신자들이 이 캠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뿌리내리도록 더욱 사랑과 기도로 섬기겠다”고 밝혔다.

오순절성령비전캠프는 앞으로도 제주

한마음교회와 순복음침아름다운교회의 협력 아래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복음의 불씨가 한국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본다.

목회사역의 본질, 정체성, 성전의 변천사 등 조명

순복음광주신학교, 교수 및 학생 수련회 개최

순복음광주신학교(학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7월 20일(주일)부터 22일(화)까지 2박 3일간 전남 순천시 소재 예코그라드 호텔에서 교수 및 학생 수련회를 개최했다. 본 수련회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학적 정체성과 사명감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장마가 몰려온 후 찜통더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첫날 오후 5시 30분 호텔에 도착해 짐 정리를 마친 뒤, 보양식 삼계탕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첫 강의에서는 정찬식 목사(순복음광주신학교 이사장)가 ‘성전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성전의 역사적 흐름과 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수련회의 문을 열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학장 최정식 목사가 ‘목회자의 기본기’를 주제로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사역의 본질에 대해 강의하며 참석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이어진 오후 시간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그동안의 어려움과 학교 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



다. 이 시간은 공동체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저녁에는 신재영 목사(전임 총회장)가 ‘예하성의 정체성’을 주제로 특강을 전했다. 정체성과 역사, 교단의 사명을 통찰력 있게 풀어낸 강의는 유익함과 재미를 겸비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의 후 이어진 열띤 질의응답 시간은 교수와 학생 모두의 신학적 깊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

다. 이 시간은 밤 11시까지 이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고, 참석자들은 큰 은혜와 유익을 누렸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순복음광주신학교는 교수와 학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시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신앙적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김은수 목사)는 지난 7월 25일(금) 오전 11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41번길에 위치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김은수 목사)에서 7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를 위해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했다.

이번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은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홍섭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영남동지방회 사모회의 특송, 지방회 총무 오경덕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고후 13:13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다. 우



리는 자신의 거룩을 넘어, 교회의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다. 여러분 자신의 거룩만뿐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들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축복해야 한다”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전임지방회장 이성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순서에서는 지방회장 김은수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의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지방회 운영과 사역 상황을 나누었다. 이어서 회무와 광고를 통해 향후 사역 방향을 논의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월례회를 통해 영남동지방회 소속 교회들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고, 목회자 간의 유대와 연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나라와 교단과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오세준 목사)는 지난 7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순복음참빛교회(담임 강인덕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나라를 위해, 교단과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전임지방회장 김장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용진·이상숙 전도사의 찬양 인도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오세준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임지방회장 강인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시 1편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또



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길을 잘못 들어서면 옛길로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긋나게 살지 않아야 한다.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회원들 모두를 축복했다.

합심기도 후 우광덕 목사의 헌금 기도, 박승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

바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했다. 이날 공지 사항을 통해 교회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지방회 총무에게 통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회 헌금 계좌번호와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전달되었다. 경기북지방회는 앞으로도 매월 지속적인 월례회를 통해 영적 교류와 교단 내 유대 강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활력·선교비전

‘탁구 통한 선교사역 확장’ 위해 기도

예하성 탁구선교회, 대림벤엘교회에서 열려

예하성 스포츠 선교회 산하 탁구선교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7월 24일(목)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79 소재 대림벤엘교회(담임 조선남 목사)에서 제8회 탁구선교회 정기모임을 갖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인 탁구를 통한 선교사역 확장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운동하며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탁구선교회 회계 이반석 목사(청주아가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문찬우 목사(예수온선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임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창 5:21-24 말씀을 본문으로 ‘예복과 엘리야의 휴거신앙’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본문말씀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고 히브리서 11:5를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보이지 아니하니라’고 했다.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옮겨 주셨다는 것이다. 에녹이 들림 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승천의 소망을 준다. 에녹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 사람들은 에녹처럼 잘라 들림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에복과 엘리야의 휴거신앙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2부 기도는 은혜서원교회 장성미 목사의 인도로 ‘교단과 나라와 민족 복음화, WCC·WEA, 동성애 반대, 열방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자의 광고 후 최형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2025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

‘마음은 새롭게, 믿음은 뜨겁게’ (롬 12:2) 주제로 개최

7월 27일(주일)~29일(화) 대림벨엘 평창수양관에서
총회장 엄하석 목사 외 김용준 변호사, 조선남 목사 등 강사로



엄하석 목사
예하성 총회장
주성교회 담임



조선남 목사
예하성 교육국장
대림벨엘교회 담임

교단 교육국(국장 조선남 목사) 주관
2025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대
회장 엄하석 목사)가 지난 7월 27일(주일)
부터 7월 29일(화)까지 2박 3일간 대림벨
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담임 조선남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전국에서 모인 초

등부 56학년, 중고등부, 청년부 청소년들
이 모여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믿음으
로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로서 함께
은혜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지방회 산하 교회들의 적극
적인 참여 아래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가
운데 2박 3일간 열린 이번 캠프는 ‘마음은
새롭게, 믿음은 뜨겁게’(롬 12:2)라는 주제
아래 교단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개회예배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 지방회 소속 교
회별로 2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2박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



김용준 변호사

스도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하나가 되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개
회예배 말씀을 비롯 김용준
변호사의 포괄적차별
금지법 특별강의, 교
단 교육국장 조선남
목사, 교단 서기 문
찬우 목사, 교단 선



교국장 임형순 목사, 교단 청년국장 오세
준 목사, 성령충만 집회 인도, 특강, 공동체
훈련, 콘서트, 간증콘서트 및 시상 등 다양
한 순서와 함께 이번 캠프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뜨거운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
는 한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찬양의 열기
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었다.

특히 특강을 통해 맞춤형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고 깨닫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수련회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주제강
의를 통해 밝은 웃음을 되찾는 친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회를 준비한 대회본부장 조선남 목

사는 교단내 중소형 교회 및 소규모 청년
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개최하는 2025년 다음세
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목회자들의 관심과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마
음을 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출판기념 제80주년 8.15 국가기도회

주 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일 시 2025년 8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까지

장 소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TEL. 02-763-9746

대 회 조 직

■ 고문

김원식 교육수 김기형 예영수
정태대 김수영 영종호 이태우 송현

■ 대회장

이광용

■ 공동준비위원장

김원식 안병삼 김화인

■ 협동준비위원장

지광식 오선미 하석수 원동진 김상돈

■ 준비위원

영정호 김병선 이태우 민철진 정호석
박용용 김순중 강상모 김용현 이종태
주영일 박대규 김준태 김영복 최명철

■ 공동회장

고정수 권도영 권혁은 권영자 김남식
김다윗 김병선 김수영 김요나 김태지
김성곤 김성태 김성중 김연선 김명배

■ 지도위원

김준태 김경숙 김근수 김바울 김상호 김성호
김준복 김석배 김 민 김영복 김원식 김영복
김영옥 김명리사 김민수 김필승 김준도

■ 협동총무

김능복 김대길 김미선 김성대 김성기 김병수 김원주
김원수 김귀환 김영은 김필승 김예성 김태곤

■ 총괄총무

김종태 김준태 김준태 김준태 김준태 김준태
김준태 김준태 김준태 김준태 김준태 김준태

■ 기획본부 위원회

● 기획본부 위원장: 안병삼 ● 서기: 서영진
● 위원: 김경태 김바울 조규현 육임성 김미자 이한나

■ 예배본부 위원회

● 예배본부 위원장: 이우현 ● 서기: 전귀환
● 위원: 김순애 계영찬 이순자 박정원 박정호 최순애



이광용 목사
(사)예장총연
대표회장



최희번 목사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예연수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강준오 목사
(사)한국기독교연
이사장



김원식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김기형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송현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안병삼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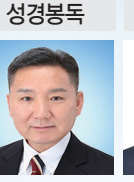
원동진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김화인 목사
(사)예장총연
지도위원



김병선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김용회 목사
예장합동총회
총회장



박대규 목사
예장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조규연 목사
예장합동개혁총회
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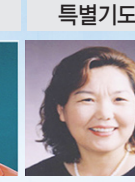
권혁은 목사
예장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종태 목사
예장선교총회
총회장



양유식 목사
예장적은자심김총회
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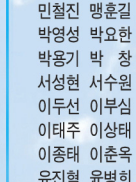
오선미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하석수 목사
예장합동진국연합총회
총회장



김순중 목사
(사)예장총연
법인이사



김영복 목사
(사)예장총연
서기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70개 교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6, 2층 / TEL: 02-706-2970~1 FAX: 02-706-2990

● 협 력 : CTS기독교TV · 복음신문 · 교회연합신문 · 목양신문

빈민촌에 울려퍼진 은혜와 사랑의 선물

필리핀 쓰레기 더미 빈민촌 거주민들에게 ‘성가곡 공연’ 큰 기쁨과 희망 선사

필리핀 바세코 빈민 마을에 울려 퍼진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눈물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크나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이하 한기총)와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대표 김혜영)가 함께한 필리핀 바세코 빈민촌마을을 위한 음악회가 지난 7월 17일(목) 오후 3시에 열렸다.

은혜로운 성가와 세계적인 명곡을 선보인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대표 김혜영)의 이번 음악회는 1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임시로 마련된 공연장을 가득 매웠다.

이날 소프라노 김혜영이 피아니스트 김윤경의 반주에 맞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에는 모두가 은혜에 넘쳐 눈물을 흘리고, 바리톤 권용만이 중후하고도 부드러운 음결로 ‘유 레이즈 미 업’을 부를 때는 전주부터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마이웨이’를 부를 때에는 군중들이 떼창으로 함께 따라 부르며 음악에는 남녀노소와 국경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송이의 감미로운 ‘엘가의 사



랑의 인사’가 연주될 때는 모두 지그시 눈을 감고 감상하는 등 어떤 무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한 감동을 자아냈다.

특히 스페인 무용의 국내 권위자인 최민영의 플라멩고 춤의 정열적이고 경쾌한 스텝은 모두가 함께 따라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필리핀 남녀 학생들로 구성된 워십팀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의 찬송에 발을 맞춰 안무를 해 빈민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페라 단원들과 한기총 대표단으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출연진, 한기총 대표단, 빈민촌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부른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하나 된 하모니와 성령의 역사가 어우러진 무대였다.

출연진은 한국어로, 이들은 따갈로어어로 음악에는 국경과 인종의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 모두를 은혜의 심연으로, 감동의 물결로 넘쳐나게 한 다시 보기 힘든 감격을 자아냈다.

재능기부로 무대에 오른 킹스보이스오페라단원들은 열악한 무대 환경과 기후의 악조건 속에서도 도성민 연출가와 필리핀 무대 스텝, 출연진의 상위일체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그 어떤 음악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긴 무대를 장식했다.



한기총과 함께 공연에 나선 킹스보이스 오페라단원들의 성가곡 연주

“태아도 생명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80개 시민·기독교 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열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공동대표 김계춘 외)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등 80여 개 단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수년간 이를 외면해 법적 공백 상태를 방치해 왔고, 최근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악물 낙태 도입과 건강보험 지원을 포함한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극단적 여성 단체들의 요구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해당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은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있으면 생명으로 인정되는데, 태아는 수정 후 6주면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만삭의 태아까지도 낙태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반려동물을 고의로 죽이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보다도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또한 “남인순 의원은 과거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태아를 ‘인공임신중지’의 대상으로만 표현하며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낙태가 ‘임신중지’라면 살인은 ‘생명중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재판소도 ‘태아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태아는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며, 국회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윤리와 생명의 존엄을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롬나비 /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반대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은 양성평등의 혼인과 가족 질서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민 63.4%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변경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상 여성가족부이든 성평등가족부이든 그 정체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를 둔다. 우리 헌법은 양성 평등과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별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여 남녀 양성평등을 보장한다. 제36조 제1항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호’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성별’, ‘혼인’, ‘가족’의 전통적 규정을 포기하려는 압박이다. ‘여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면 생리학적인 여성 개념을 포기해야 하며 동시에 생물학적인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은 예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기독교 인간학과 윤리학적 측면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윤리적 혼란 야기시키는 개편 시도를 멈추어 주기를 바란다. 살롬나비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성경 진리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가족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헌법 정신의 왜곡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변질될 것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의 법 앞

의 평등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성별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남녀 구분의 성별을 ‘성평등’으로 바꾸면 성별 개념의 외연은 제한 없이 확대되어 성적 성향과 지향이 남녀 학적 성별 소유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성 전용 공간의 침해로 인해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 침해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평등권으로 보호받던 생물학적 성별 소유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성 전용 공간의 침해로 인해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 침해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평등권으로 보호받던 생물학적 성별 소유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성 전용 공간의 침해로 인해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 침해될 것이다.

2. 젠더주의 ‘성평등’은 생물학적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위협한다.

젠더주의 성평등은 혼인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킨다. 성평등 개념의 확대는 양성(남녀)이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다. 가정은 남녀의 결합이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에 따른 결합이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법적 근거가 되며 동성혼의 견고한 법적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동성 결혼과 가족 등록은 물론 가족으로서 동등한 상속과 세금 혜택, 양육권과 의료 결정권을 법과 제도로 확

정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남녀 결합과 혼인, 출산에 의존하는 가족 개념은 사라진다. 동성 부부, 다자성에 관계, 법적 혈연 없는 구성체가 ‘가족’이 된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역할 모델도 약화하거나 사라지면서 자녀 양육의 혼란을 야기하고 아이의 성 정체성과 보편적 심리 발달을 가로막을 것이다. 아이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 기준을 형성하기 어려워지며 자신과 동일한 성을 가진 부모의 부재는 성 역할 모델이 사라지는 매우 큰 혼돈을 초래할 것이다.

3. 2021년 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을 더 보완하여 성평등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헌법이 명시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적극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넘어 젠더 전반에 걸친 차별지정을 목적으로 삼는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양성’ 속에 성차별 관행 철폐라는 포괄적 가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전히 남녀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와 혼인제도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교육, 젠더 교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만 강조하지 않고 전통적 윤리와 가치도 함께 실현할 것인가를 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한다면 성평등 요구는 해소할 여지는 충분하다. 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장치를 보완하고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존중하되, 혼인·가족 제도의 근본 원리는 유지하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확산시키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논쟁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와 제36조(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의 취지를 반영한다. 남녀 평등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양성평등 내에서 ‘젠더 주류화’를 통해 여성·남성을 넘어서는 평등 기준을 수용하고자 한다. 젠더 주류화는 정책과 법, 제도와 관행 등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성별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다. 단지 법적으로 남녀를 같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된 성차별 요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또한 생물학적 남녀 평등을 넘어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등)과 성적 지향(동성애 등)에 따른 차별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숙지하고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 때도 헌법이 정한 ‘양성평등’ 취지가 모호해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기본법이 성평등의 법제화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 ‘양성평등’으로는 결국 부족하므로 성평등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더욱 냉철해야 한다. 전문가의 명확한

식견과 예리한 판단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5. 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젠더주의 성소수자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자.

젠더주의 성소수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대상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성소수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인들과 남성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둠으로 사랑의 순리를 역리로 바꾸고 동성에게 음욕이 불일듯 한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상태에 해당한다(롬 1:26-27 참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양성의 질서를 통해 가족을 형성하게 하셨다. 하지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창 3:22) 타락한 인류는 순리를 거역하여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고(삿21:25) 가족관계를 왜곡하고 파괴한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의 수신자가 동성애자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성향이냐 행위를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된다. 교회는 이들에 대해 회개와 함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안내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로 그들을 대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 아닌 복음적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적 타락을 합법화하고 미화하려는 성평등 법제화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리지만 동시에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회개

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6. 교회는 젠더주의 성평등 주장의 독소를 깨닫고 돌아오는 모든 자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양성을 지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혼인이며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본 토대가 되게 하셨다. 대한민국 헌법도 양성평등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주장의 가장 큰 맹점과 독소는 성별 이분법의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제도화를 꾀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정, 교육, 종교의 자유에 심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단합하여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성평등 주장에 이미 노예가 된 자들 중 중독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 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 복음의 문을 언제나 개방해 놓아야 한다. 요단강 동편 땅새 곳, 사렘 땅(가나안) 새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살인을 한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설립한 도피성처며, 한국 교회는 이 시대 성평등의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형제자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지체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정 이입을 해야 한다. 원치 않는 성 폭력으로 이미 원치 않는 동성애자가 되 어 고통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갖고 자들을 성적 중독에서 구해내야 한다.

2025년 8월 4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 개최

밀알복지재단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밀알복지재단과 KS한국고용정보(대표 손영득, 허대건) 소속 발달장애인 예술단이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 미술관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총 21인의 발달 장애인 작가가 참여해 회화 88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 두 가지 테마로 각각 진행되었다. 제1전시실에서는 브릿지온 아르떼 작가 8인(김기정, 김성찬, 김수광, 김지우, 이민서, 윤인성, 최석원, 현승진)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 달로이트 그룹, DS투자증권 소속 초대작가 3인(김은규, 신익수, 전민재)이 함께하는 기획전 〈숨은 말, 드러난 마음〉이 개최된다. 총 11명의 발달장애인작가가 4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숨은 말, 드러난 마음〉 전시에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브릿지온 아르떼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함께, 8월 2일 오후 2시 브릿지온 아르떼 작가들의 그림을 활용한 부채·파uzzle 색칠하기 체험이, 3일 오후 2시 키링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었다.

삼계탕데이 밥사랑잔치 및 국악공연

‘고독생 프로젝트’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열려

‘고독생 프로젝트-사랑의 삼계탕데이 밥사랑잔치 및 국악공연’이 7월 30일 서울 마포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소셜서비스 전문 NGO (사)월드뷰티웬즈(회장 최에스터 교수, 엘드림노인대학장)와 예정 통합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회장 김관중 장로) 및 평남노회 남선교연합회(회장 이성진 장로), (사)해돋는마음(이사장 장현일 신생명나문교회 목사), 신한대 K-뷰티소사이터티연구소(소장 최에스터 교수, K-뷰티학과)가 공동 주최했다. 김관중·이성진 회장은 “중복을 맞아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어려운 독거어르신들 비롯한 거동이 힘든 독거어르신께 사랑의 삼계탕으로 섬겨 드릴 수 있어 기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더욱 영육이

강건 하시기를 바란다”고 각각 축사와 대표기도를 했다. 이어 임응배 장로(남선교회 이북협의회장)가 식사기도를 드렸다. 장현일 이사장과 최에스터 회장은 “외롭고 힘든 쪽방촌과 거동이 어려운 독거어르신들이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을 통해 서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나눔과 섬김으로 고독생 프로젝트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효연하모니국악찬양단(단장 이종균 목사)과 박민희국악찬양단(단장 박민희 권사)이 화관무, 북춤, 장고춤, 부채춤, 국악찬양 등 다채로운 특별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전도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행복의 두 날개여, 비상하라. 푸른 창공 희망의 포구를 향하여. 아, 푸른 물결 절제된 속삭임이여. 에메랄드에 취해 그대의 자태 하늘빛 되었네. 그리고 한 폭의 수채화 태고의 그리움, 바다는 여름을 품고 파란 숨결로 나를 적신다. 흐르는 흰 구름 먼 여행을 위해 지친 길을 수평선 걸쳐 잠시 쉬어 가세. 광활한 해변 위, 모래알마다 네 이름이 쓴 듯 반짝거리네. 우리 바다, 긴 호흡이여 구름은 멀리서 노래를 읊고 은은한 파도는 나의 꿈을 끌어안는다. 보라, 구도자여, 잊혀진 계절, 그 안에서 나는 다시 노래가 되었고 너는 내 바다의 바람이 되어 조용히 내 곁을 지나간다. 그대여, 부디 멈추지 않기를...오늘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감고 주의 영광과 평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향기로 피어난 한 송이 꽃을 피우리라. 예수님의 향기로 피어난 한 송이 꽃을 피우리라. 한열산 집회와 오산리 금식기도원 대성회 2025년 7월 28일(월),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대성회 첫 타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고, 사회는 이수 교수가 맡았으며, 대표기도는 한택수 목사가 인도했다. 박영수 목사의 이날 설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였다. 마치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현장을 연상케 할 만큼, 현장에는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가득했다. 집회 중 말씀을 듣는 전 성도의 눈빛 하나 흐트러

짐 없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한 태도는 전도의 큰 도전이 되었다. 집회가 모두 마쳤을 때는, 별도로 “기도 받으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안수를 받기 위해 줄을 이었고, 그 가운데 실제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등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한 집사님은 제주도에서 이번 전도 집회만을 위해 올라왔으며, “주님께서 이 전도 집회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가슴 속 영혼 구원의 불덩어리를 어찌 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LA에서 방문한 한 집사님은, 짧은 간증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으며 이수 교수에게 2부, 3부 간증을 요청했다.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사모하는 눈빛에는 영적인 강력한 열망이 담겨 있었으며, 마치 초창기 성령충만했던 그 순수한 은혜의 현상이 지금 이 자리에 재현되고 있는 듯한 감격이 흘렀다. 제주도 집회 초청 요청도 있었으며, 바쁜 일정 가운데 전도 스테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는 교제의 기쁨 또한 컸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백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가족세트전도 총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생명나눔 문화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뮤지컬 기획사 엠스테이지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 이하 운동본부)는 최근 뮤지컬 기획사 엠스테이지(대표 김인성)와 생명나눔 문화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연예술과 장기기증 운동의 만남을 바탕으로, 문화적 혜택을 나누고 생명나눔 정신을 확산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엠스테이지는 협약에 앞서 올해 2월부터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및 생존 시 장기기증인, 본부



후원자 등 200여 명을 창작 공연에 초청해 무료 관람을 후원하며 공연자 내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서 비치와 홍보 배너 설치 등을 통해 생명 나눔 인식을 확산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연 초청 대상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까지 확대해 생명나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기증인과 유가족에게는 공감과 치유의 메시지를, 일반 관객에게는 생명나눔 가치를 보다 적극 전할 예정이다.

아신대학교 신대원, 신학박사 과정 신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Th.D. 과정 등 변화 추구

1974년 아세아 복음화라는 비전을 품고 아세아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아신대학교(이하 ‘ACTS’)가 지난 2024년 개교 50주년(히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해외 및 원거리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하

이브리드 형태의 신학박사(Th.D.) 과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신설된 일반대학원 신학박사(Th.D.) 과정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이 직접 대면수업 또는 온라인수업 중 참여 방법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신학대학원 성경강해학(Th.M.) 및 M.A. 신학 과정도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교대학원은 동영상과 줌을 통하여 온라인 100% 과정으로 신교학석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대학원과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등에서도 일정 과목을 E-강의실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수업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ACTS 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학 원서접수를 지난 8월 5일(화)까지 진행했으며, ACTS 대학원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www.acts.ac.kr/grad)

WEA서울총회 반대성명 발표

다음은 예정 합동 전임총회장단의 성명서 전문.

WEA에 대한 전임총회장단의 입장
첫째, WEA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단체로서 그 현장에서부터 신정통주의나 성경 비평주의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의 무오성과 절대 권위를 고백하는 개혁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둘째, WEA는 WCC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복음화보다는 인류의 공동선을 앞세움으로써 사실상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WEA는 WCC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으며 로마 가톨릭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성경과 전통, 이신칭의 마리아론 등에 걸친 신학적 타협의 결과를 여러 문서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넷째, WEA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명목상의 고백만 있으면 분명히 신학과 교리에 대한 검증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GCF(Global Christian Forum, 세계기독교 포럼)를 만들어 세계 교회의 일치를 도모했으며 그 가운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인정하고 타 종교인들을 향한 개종 전도를 포기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죽산 박형룡 박사는 WEA의 신복음주의를 “신 이단”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지부에 해당하는 NEA(WEA)를 WCC 에큐메니칼 협의회 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유주의 이단을 묵인 내지 선포하는 사이비 보수주의자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WEA를 지지하는 본 교단의 현대 신학자들의 반박은 교단을 지켜온 전통성과 성격을 무시하는 결과로, 교단의 신학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 중심으로 지켜온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서 배치됩니다.
여섯째, 우리 교단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WEA(NAE) 탈퇴를 결의한 후 제104회 총회에서 ‘우리 교단이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WEA와의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로 다루었으나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서 재론되며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논쟁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WEA 탈퇴 결의와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상충되는 것 같으나 논쟁을 피하기 위해 유보한 것은 제44회 총회 결의가 폐기된

것이 아니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WEA는 가톨릭, 이슬람교와 회동하며 복음의 양보가 아니라 선교사 보호와 복음전파 통로를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나 이는 종교다원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교단이 중심이 되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단과 교회가 연합일치해서 바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GMS가 선교지역의 나라, 교단, 정부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GMS를 통해 선교지의 바른 개혁주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여덟째, 한달 전에 짐바브웨 WEA 의장 겸 사무총장인 ‘굿윌 샤냐’가 시무하는 교회를 방문한 한 교수의 증언을 통하여 신사도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00회 총회 결의에 신학부는 신사도운동을 교회관 및 기독교 세계관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단에서 신사도운동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조하며 엄히 경계를 결의했음에도 WEA 지지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2019년에 한기총이 WEA에 가입되었고 당시에 우리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었다고 자동 WEA에 가입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교단이 한기총에서 탈퇴하고 한교총에 가입되었으나 한교총에서 WEA 한국 유치를 지지하는 서명을 할 때 한교총 대표이며 우리 교단 현 총회장인 김종혁 목사는 서명하지 않고 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기관인 한기총은 처음에는 복음적인 단체인 줄 알고 WEA와 함께 했으나, 역사 속에서 변질됨을 확인하고 2025년 6월 17일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1주간 방문하여 조사하며 실시한 후 한기총이 신학적,



성경적으로 검증한 결과 “정체성 없는 연합은 복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며 WEA 반대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결언〉
우리는 WEA의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과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단호히 거절하며, WEA를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입장을 가진 해로운 단체로 규정합니다(고전 11:17). 따라서 우리 교단이 WEA에 가입하거나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현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며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 서는 것이 우리 교단과 교회를 살리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지켜왔던 보수신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입장을 이상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7)

주후 2025년 8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임총회장단
회장 김선규 목사 외 회원 일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불만과 불신의 시너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너무도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국무위원 청문회는 후보자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표본처럼 보여줍니다.

사회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서 논문표절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보면 도덕적 불감증이며, 사회 전체가 서로서로 불신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을 녀석이 어디 있나, 그 놈이 그 놈이고 모두 똑같은 놈들이지”라며 자조 섞인 말들을 뱉어냅니다. 또한 너무도 놀랄 일을 많이 겪고 살아와서 인지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좀처럼 놀라지도 않습니다.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이 같은 일이 더 놀랄 일입니다. 불신의 시너지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믿음성은 믿어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래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의 한분이 “이 사람 믿어주세요.”라고 했었는데 더러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후에 크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16세기의 이탈리아 사람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군주론』만 읽은 사람은 “여우의 교활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카네기의 처세술을 아는 이들은 “진실”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전에 동화 중에 「나무꾼과 도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깊은 연못에 빠뜨리고 울고 있던 가련한 나무꾼에게 산신령(?)이 나타나서 도끼를 찾아줍니다. 이때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여주지만 나무꾼은 정직하게 그냥 쇠로 만들어진 도끼가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여 산신령을 감동시키고 상으로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순금은 도금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 12:19)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기쁨의 골방, 광야

황량한 광야로 가는 인생이
육의 눈으로 보면 저주인 것 같으나
영의 눈으로 보면 복의 시작입니다.

위를 바라며 이곳에 보낸 이유를 묻는 자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밀실이 되어
회개와 감사가 울려지는 기쁨의 골방이 됩니다.

인생 누구라도 광야에서 시작되는 훈련
적막이 친구 되는 그곳에서 귀머거리 듣게 하고
못 보는 자 보게 하는 놀라운 훈련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곳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인 것을 알아채는 곳
피조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곳

땅을 치며 원망 불평 쏟아 놓는 자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두려움은 짙어져
세미한 주의 음성 들을 길 없습니다.



내게도 찾아온 광야의 삶...
그곳에서 만난 주님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어진다.

사설

상식·균형 잃은 정치, 기도·분별 절실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혼란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날 선 언쟁이 오가고, 경쟁하듯 상대를 향한 극단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여야 간의 정쟁이 도를 넘어서 헌법의 기본질서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시선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최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이들이라는 이유에서다. 더 나아가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은 아예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이라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란 무엇이며,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름을 인정하고,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며,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 아닌가?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과거 유신 정권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 원직을 제명당했던 사례가 있다. 그 이후 나라가 어떤 소용돌이 속에 빠졌는지를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웠다.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다시 ‘제명’과 ‘해산’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기관이다. 그 안에서의 논쟁은 필요하지만, 헌법적 가치나 국민 통합을 훼손하는 언행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특정 의원들이나 정당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극단적인 표현은 정치적 설득이 아닌 정적 제거에 가까운 방식이며, 이는 결국 우리 정치의 품격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또한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내놓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정 사건을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맞지 않으며,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법치주의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를 뜻한다. 정치가 사법을 움직이려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불신만을 남긴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국방·안보 인식도 국민의 불만을 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우리를 향해 ‘제1의 적대국’이라 선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현실에서, 주적 개념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는 국방·통일 수장들의 발언은 무책임해 보인다. 국가 안보는 단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실존적 사안이다.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 삼아, 어느 누구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중보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정치가 상식을 벗어나고, 공공이 아닌 당리당략이 앞설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정죄나 혐오가 아닌, 화복과 통합을 향한 진리의 말씀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과거 우리 정부에서 넘어간 돈이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0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북에 넘어간 돈이 8조 원이 넘는 데, 그해 결국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해산 운운하는 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정치라는 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를 인정하지도 않고, 없애버리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그런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극단적 주장보다는 건강한 토론이, 편 가르키보다는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정치권 모두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권력이 아닌 사명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의 정치와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참된 정의와 평화의 흐름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민족의 미래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5. 8. 29(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서식다운로드→교단서식→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2부 작성→지방회에 제출→지방회임원회 심의→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5. 9. 8(월)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5. 9. 25(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5. 8. 29(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 사 고 시 : ① 일시: 2026. 2. 2(월)~3(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 3층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엄하석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